

**동아 DAU:M**

교육	학생성장 지원체계 구축
연구	미래대응 연구역량 확보
산학협력	L2M 가치 창출
대학경영	DAU네트워크 가치 창조
글로벌	글로벌 위상 및 브랜드 정립
DK	지역공유/협력 디지털 플랫폼 구현



동아는 지금

123번째 소식지

DONG-A UNIVERSITY since 1946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www.donga.ac.kr](http://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http://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https://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https://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https://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23

# 동아는 지금

동아대학교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Hot News** 주요 행사 · 인물 동정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 동아대학교, 그리고 동아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23번째 소식지



부민캠퍼스 종합강의동 2층

2024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동아는 새로운 역사 앞에 섰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지만  
모두가 바랐을 미래

증명된 우리의 가능성으로  
반드시 실현할 그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멈추지 않고 나아갑니다.

새로운 혁신,  
동아는 해낼 것입니다.

## 동아는 지금

DONG-A UNIVERSITY NEWSLETTER  
2024 VOL. 123



### 04 ISSUE FOCUS

- 04 동아대, '2024 글로벌대학' 최종 선정
- 06 글로벌 동아 세계로 DIVE



### 08, 22, 30 ESSAY

- 08 경영가이자 독자가로서의 삶  
故 엄기섭 한진물산(주) 회장
- 22 동아가 무르익는 시간
- 30 2024 가을 도서관 테마도서 추천

####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123호)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국제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 fund.donga.ac.kr  
**디자이너** 디자인대훈 051)898-0330



### 10 HOT NEWS

- 10 학생복지 향상 및 교육환경 개선 활발
- 11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5년 연속 선정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7년 연속 선정
- 12 부산 신평장림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선정
- 13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  
2024 에너지혁신인재포럼 최우수 성과상 수상
- 14 2024년 지방대학 활성화사업 연차평가 A등급 받아  
산학협력 성과 확산 위한 혁신 행보 눈길
- 15 청년고용지원사업 선정 2관왕 쾌거  
취업지원 사업 날개 달다
- 16 국제교류 활동 활발  
글로벌 동아 인재 양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
- 17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 든든한 지원  
지역동반 성장을 위한 자·산·학 협약 체결
- 18 동아대 교수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성과 발표
- 19 동아대 교수들, 연구 업적으로 수상 활약  
동아대 학생들, 각종 대회 수상 잇따라
- 20 석당박물관 특별전 및 정기기획전으로  
부산 문화 발전에 한몫
- 21 명불허전 '스포츠 동아' 동아대 선수들 눈부신 활약

#### 동아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 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재홍)



### 24 DONG-A PEOPLE

- 24 동아대와 부산의 성장을 이끌  
기틀을 다지다  
최정호 LINC3.0 사업단 단장
- 26 변화를 성장으로 이끄는  
충실한 기분을 증명하다  
방성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 28 아콩카과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을 따랐어요  
산악부 다우약



### 32 HAPPY DONATION

- 32 발전기금 기부뉴스
- 39 발전기금 기부현황 / 후원의 집 소개
- 42 DONG-A SNS

# 동아대, '2024 글로벌대학' 최종 선정!

- 대학-지역-산업 간 경계를 허무는 필드(현장) 캠퍼스 활용
- 4대 특화 분야(에너지테크·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부산 헤리티지) 중심 연합교육
- 학생 성장·성공을 위한 무제한 지원, 미래대응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

## 통합 산학협력단을 기반으로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부산 개방형 연합대학

2024년 8월,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연합대학이 교육부에서 선정·지원하는 2024년 글로벌대학으로 최종 지정됐다.

# 동아대학교가 부산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갑니다

Dong-A, Where We Make Your History

### University

전략산업 생태계 혁신과 통합산단 수익 창출 캠퍼스

### Field

공간-제도-인사의 경계를 허무는 현장 캠퍼스

### Global

우수 유학생 지역 정주를 위한 글로벌 아시아 No.1 캠퍼스

# 부산의 미래 성장, 그 동력을 마련하다

새로운 사학 연합대학의 패러다임이 될 연합대학 거버넌스 특화중심 Field 캠퍼스 기반 교육·연구 혁신

동아대와 동서대는 '글로벌 연합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부산 개방형 연합대학 생태계 조성 및 연합대학 자원 공공재화를 통해 개방형 연합거버넌스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방형 연합대학의 핵심인 '개방형 UFG 캠퍼스'를 구축하고, 부산시 전략산업을 주도할 특화 분야의 지식이 창출되는 5개 대학(U)캠퍼스, 학습경험과 훈련이 이뤄지는 필드(F)캠퍼스,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벌(G)캠퍼스 등 각각의 캠퍼스에서 연합·통합 교육을 통해 지역정주형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강력한 연합, 우리의 미래를 견인하다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지역사회 공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서부산 삶의 질 개선으로 부산 균형발전에 기여

아울러 에너지테크(수소, 반도체), 휴먼케어, 문화콘텐츠(디지털 융합 첨단콘텐츠, 융합 디자인), 부산 헤리티지 특화분야 육성의 거점이 될 지·산·학연합연구원 설립·운영, 수익형 별도 법인 운영으로 창출된 수익 재투자 등 '지·산·학' 혁신 기반 수익창출형 통합산단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 지역 정주 시스템오피스(SO)를 신설해 △ B-헤리티지 문화콘텐츠 활용으로 부산시 글로벌 인지도 제고 △ 디자인 중심도시 구현을 통한 지역발전 및 도시 브랜드화 △ 서부산 원도심 스마트 혁신 추진으로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 제고와 부산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해우 총장은 "강력한 사학 연합으로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와 함께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고 그동안 치열하게 모색해 온 부산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대와 동서대가 함께 실현할 부산 그리고 대학의 혁신적인 미래를 기대해 본다.

## 혁신 방향 및 추진과제

### 개방형 사학 연합대학

개방형 사학연합 모델 구축  
연합대학 통합시스템 구축

시스템오피스 기반 연합대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통합산단 기반 Field 캠퍼스 연합대학

특화중심 Field 캠퍼스 기반 교육·연구 혁신  
글로벌 연합대학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  
지속가능한 수익형 통합산단 운영 및 성과모델 확산



특화분야 전문 인력  
**15,000**명



QS Asia Ranking  
**100**위



통합산단 매출  
**2,000**억 원

### 지역정주형 글로벌 연합대학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한 무제한 학생성공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캠퍼스 체제 혁신 & 우수 외국인 정주 유학생 7000  
지역 인지도 향상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역정주인재 배출  
**7,500**명



지역정주율  
**50**%



우수 외국인 유학생  
**7,000**명 유치

## 기대 성과



## 다양한 세계가 만나 더 큰 세상으로 글로벌 동아, 세계로 D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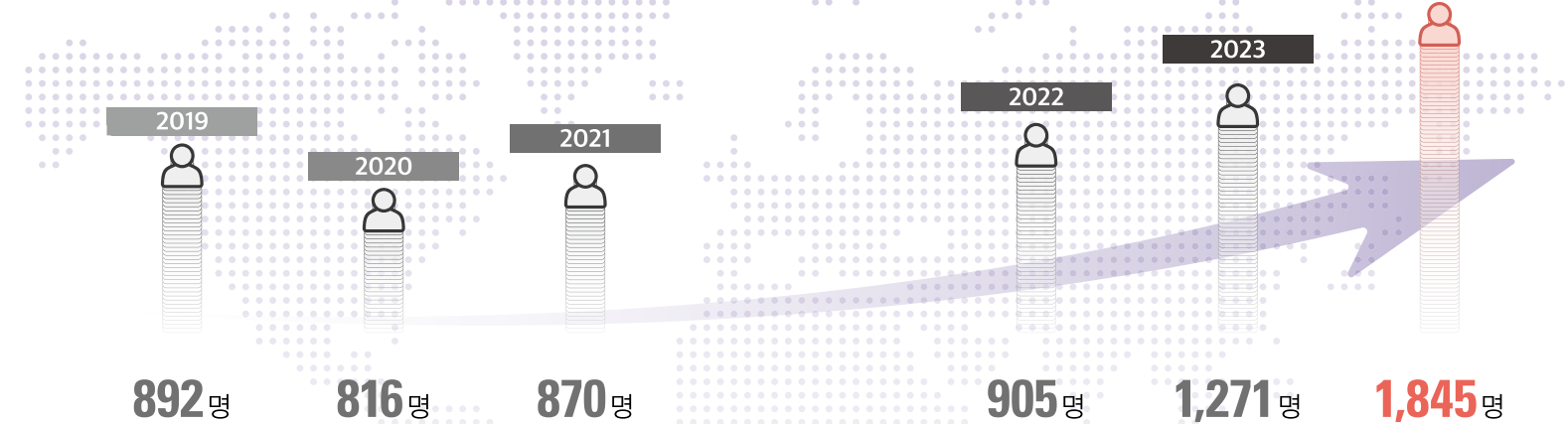


지난 3월 27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2024학년도 1학기 외국인 신입생 환영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동아대는 국제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학기에는 29개국 430명의 외국인 신입생이 학부생과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대학원생으로 입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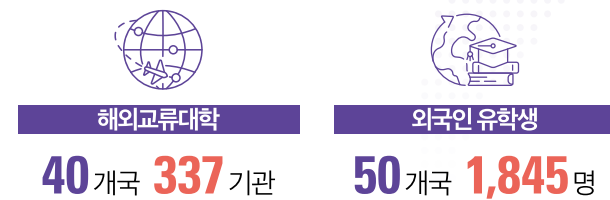
## 코로나19를 뚫고 증명한 동아다운 글로벌 파워

동아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동영상 강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비대면 환경에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수업환경을 구축해 참여 유학생 연 1,000명을 유지한 바 있다. 팬데믹 해제 직후부터는 관련 협력기관 관리 강화, 입학설명회와 맞춤형 학교 홍보 진행 등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영어트랙 학부 편제 및 대학원 확대, 엄격한 유학생 선발, GKS(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 프로그램) 사업 확대 등 우수 유학생 유치에 통한 국제화 역량 강화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1학기 기준 외국인 유학생이 총 50개국 1,845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3주기 인증기간 연속으로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학부/어학연수 과정)'을 획득했다. 위기를 극복하고 키워낸 동아대만의 남다른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한 것이다.

### 유학생 수 증가 추이 (1학기 기준)



### 국제교류 현황 (2024년 1학기 기준)



## 입학부터 취업, 정주까지 든든하고 탄탄한 유학생 지원

동아대는 유학생 전용 기숙사 '석당글로벌하우스' 건립, 한국어학당 전용시설 개관, 글로벌 라운지 오픈 등 유학생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다. 학생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지원을 위한 예비대학, 유학생 상담, 유학생회 지원, 유학생 서포터즈 DAILY(Dong-A I Love You), 학업지원을 위한 Global Win-Win(1:1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 유학생 전용 교양교과목 개설, 다양한 문화행사(유학생과 지역이 함께하는 문화축제인 International Day, 피크닉, 체육대회 등)를 활발히 추진하며 이를 통해 교내 구성원 및 지역과 소통하는 글로벌 캠퍼스로 도약 중이다. 앞으로 취업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 정주 인력을 양성하고 동아대만의 다양한 교내외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대학 구성원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 MINI INTERVIEW



“세계 각지 우수한 인재를 동아대 한국어학당 및 초청 교환학생으로 유치함으로써 동아대학교의 글로벌 경쟁력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 Q 동아대의 글로벌 성과와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이후, 선제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과 GKS 프로그램 등으로 우리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3년간 급격히 늘어난 유학생 수는 국제화의 중요한 성과지만 이러한 변화에 구성원들이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와 함께 구성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제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국인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환학생, 글로벌 R&D,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추진, 유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지원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 Q 글로벌대학 선정으로 국제교류과의 역할이 더 막중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은?

동아대는 글로벌대학 사업으로 지역사회, 산업계, 해외 협력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및 산업-해외기관과 협력해 연구 및 교육 역량을 증진할 거버넌스 구축(BIG: Busan Innovative Global), 둘째, 외국인 학생들이 쉽게 적응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전학습과 지원 체계 강화(B-Welcome), 셋째, 지역과 산업체 연계를 통해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B-Stay) 등의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 발전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바탕으로 부산을 국제적 허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교류과는 우리 대학의 사명과 비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 경영가이자 독지가로서의 삶을 되새기며

故 엄기섭 한진물산(주) 회장

1948~2024



## 우뚝한 성과와 신념을 나누다

고인은 1948년 12월 구미에서 태어났다. 동아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다음, 부친 엄재우 회장의 부름으로 30대 초반에 한진물산(주)에 입사했다. 뛰어난 어학실력과 거래수완을 기반으로 고품질 기계공구를 엄격하게 선별, 정식 수입해 국내 공구 업계의 질적 도약을 이끌었고, '원칙과 정도'라는 경영철학을 견지해 국내외에서 남다른 명성을 떨친 연 매출 200억 원 대의 강소기업을 일궈냈다.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영위한 것이 성장의 열쇠가 됐다"는 고인의 술회에서 신념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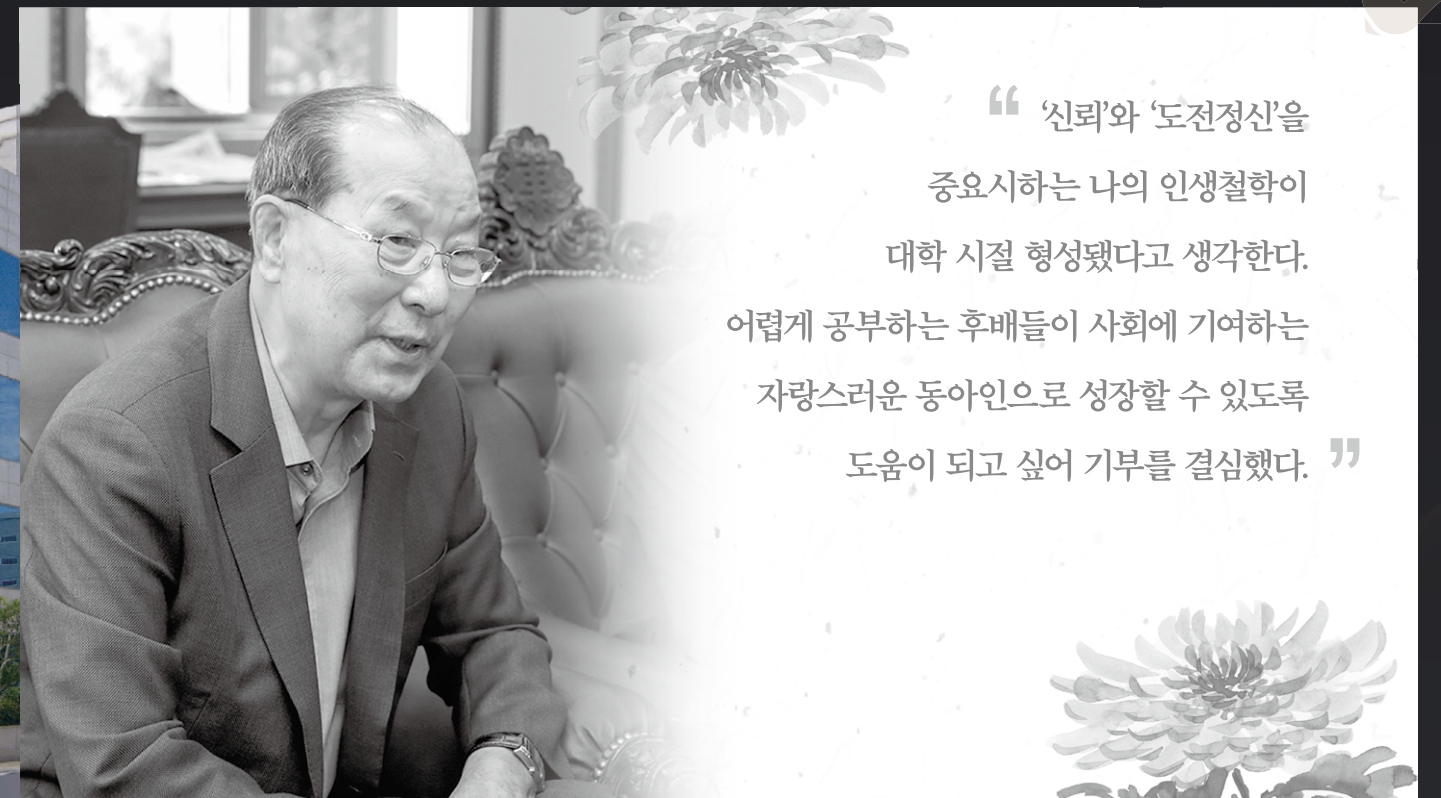


한진물산(주) 사옥

## 원칙과 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완성한 외길 인생

사업가이자 독지가였던 고인은 모교인 동아대에도 깊은 족적을 남겼다. 동아대에서 2008년 경영학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5년 동아대 명예박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2022년 개인으로 10억 원을 모교에 기부했으며, 명예박사회로 기부한 2억 8,000만 원까지 고인의 기부금은 13억 원에 달한다. 특히 10억 원의 발전기금은 '가칭'엄기섭 장학기금'으로 조성돼 재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부친 엄재우 이사장이 1994년 설립한 은강장학회를 통해서는 553명에게 5억 8,5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역의 산업교육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물질적·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해온 고인은 2022년 11월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신뢰'와 '도전정신'을 중요시하는 인생철학이 당신의 대학 시절에 형성됐다고 밝혔다. 전인격적 호의와 과감한 도전정신을 후배들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란 것은 아닐까. 우뚝한 성과와 신념이 담긴 장학금은 그의 깊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엄기섭 대표는 '자랑스러운 동아인' 그 자체다.



“ '신뢰'와 '도전정신'을 중요시하는 나의 인생철학이 대학 시절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공부하는 후배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동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 ”

## 학생위원 포함 특별위원회 운영 학생복지 향상 및 교육환경 개선 활발

동아대가 '대학 환경 개선 및 학생복지 향상 특별위원회'를 운영, 학생들을 위한 활발한 사업을 펼쳐 눈길을 끈다. 동아대는 약 50억 원을 투입, 학생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며 각종 시설 개보수, 비품 교체,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 취업 지원, 문화행사, 봉사활동 지원 사업 등을 진행했다.

동아대는 학생 위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재원 사용계획을 수립해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노후 화장실 개선에 15억여 원, 학생회관 및 생활관 냉난방기 교체에 5억여 원, 학생회관 휴게공간 리모델링에 4억여 원, 잔디 교체 및 보도 보수 등에 1억 원, 강의실 책걸상 교체에 7억여 원,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 전자교탁에 3억여 원, 사물함 교체에 4,000여만 원 등 총 45억 원을 투입하며 캠퍼스가

새롭게 바뀌었다. 각종 취업특강 및 취업지원 활동, 부민캠퍼스 취업상담실 신설, 인터내셔널데이 등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 봄축제와 대동제를 비롯한 학생회 주관 행사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해외봉사 활동, 해외교류 대학 탐방 등 각종 학생 복지사업에도 총 5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 상반기엔 화장실 및 학생회관 휴게공간과 생활관(기숙사) 도배 등 환경개선도 완료됐다.

이해우 총장은 “학교 재정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학생들의 협조로 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복지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강의실 환경, 각종 비품, 휴게공간, 도서관 및 생활관 환경 개선, 취업지원 사업 등이 활발히 이뤄진 만큼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승학캠퍼스 버스정류장 신설



승학캠퍼스 보행로 보수



부민캠퍼스 취업지원실 상담실 내부환경 개선



학생회관 리모델링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5년 연속 선정

동아대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5년 연속 선정됐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대입전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대입 평가에 고교 교육과정을 반영, 학생의 입시부담 완화와 고교교육 내실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아대는 지난 2010년부터 고교교육기여대학 사업을 추진해 오며 모두 148억 원을 지원받아 입학사정관 채용 및 교육, 고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입학전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동아대는 고교교육기여대학 3주기 사업의 마지막 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평가에서 선정, 오는 2025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동아대는 대입전형 공정성·책임성 확보, 수험

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대학의 학생 선발 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특히 동아대는 2015학년도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입학전형 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을 위한 고교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신설에 역점을 뒀다.

신상문 입학관리처장은 “동아대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의 가장 큰 고비였던 지난해 입시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며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이라는 큰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 우수한 인재를 계속 유치하고 지역 명문 사학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부민캠퍼스 전경

##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7년 연속 선정

동아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부산특구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돼 2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동아대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은 지난 2014년부터 8년간 이노폴리스캠퍼스지원사업을 운영했고 최근 7년 연속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이번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주관대학을 선정해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창업을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유망 아이템 발굴 및 검증,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아대 창업지원단은 지역산업에 특화된 창업인프라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기관인 스마트파마 동아대 기술지주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부산특구 산업 활성화와 사업화 역량을 활용, '특구형 기술창업 및 투자 지원'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미래에너지', '수소저장운송',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특구형 창업보육체제 확립과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자에게는 △교육 및 멘토링 △투자 역량 강화 △아이템 검증 자금지원 △기술이전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창업 성장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킹 구축 및 관련 사업 대기업과의 연계 등 후속지원이 제공된다.

동아대 창업지원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 내 우수기술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연계, 연구소 기업 설립, 우수기업 투자 지원 등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전형필 창업지원단 부단장은 “동아대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역량에 부산특구의 다양한 지원이 더해져 특구 내 창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부산창업생태계의 '키 플레이어(Key player)' 역할로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승학캠퍼스 창업관

스마트제조 기업 산학공동 프로젝트 등 추진

## ‘부산 신평장림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선정

동아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는 기계부품·로봇 분야 사업공모에서 ‘신평장림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원하는 ‘신평장림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은 스마트제조 혁신 교육 훈련 및 보급 확산을 위한 것이다. 스마트그린산단 특화업종별 실습 인프라 구축, 기존 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한 스마트 제조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 공학 계열 인재에 대한 교육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관기관인 부산산학융합원, 참여기관인 부산과학기술대학·부산지역산업진흥원과 함께 선정된 이번 사업엔 앞으로 3년간 국비 60억 원을 포함해 시비, 민자 등 총 73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부산의 대표 산업단지인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이하 ‘2024년 노후거점산단, 스마트그린산단’)에 최종 선정됐으며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에 적합한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한편, 동아대는 재학생 고급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디그리 과정) 운영, 스마트제조 기업 수요 기반 산학공동 프로젝트 랩(Lab) 운영,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까지 150명 이상의 학부 및 대학원 인력(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패션디자인학과)을 지원, 양성할 예정이다. 또 주관기관과 연계해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교육을 위한 플랫폼(실습테스트베드)을 구축,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사업센터 최재영(신소재공학과 교수) 단장은 “부산의 대표 산단인 신평·장림산단의 전통 전략산업 분야인 뿌리산업, 수산물가공 식품업, 패션컬러(염색·섬유)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제조 분야 전환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승학캠퍼스 전경

##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

동아대가 교육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사업책임자 정호원 교수)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분자유전공학과, 응용생물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생명자원산업학과가 참여, 산업계 수요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농식품 바이오헬스 소재 분야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인력 배출을 목표로 한다.

동아대 생명자원과학대학은 친환경 미래산업과 건강한 생활 영역 등 바이오헬스 특성화, 디지털 및 녹색 산업을 중점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장실습·견학·인턴십 등 실무 교육 요소를 강화,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울 예정이다. 동아대는 올해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학제 간 연구 및 교육 등에 사용한다.

정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바이오헬스 소재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산업체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에너지인력양성사업단

## 2024 에너지혁신인재포럼 최우수 성과상 수상

동아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중건기업 특화 인력양성사업단(과제책임자 김점수 교수, 이하 동아대 에너지인력양성사업단)이 ‘2024년 에너지혁신인재 포럼’ 에너지 인력양성 성과교류회에서 중건기업 특화 프로그램 분야 ‘최우수 성과상’을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에너지혁신인재 포럼’은 에너지산업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가 에너지산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성과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47개 사업단이 참가했다. 동아대 에너지인력양성사업단은 당일 참석한 연구수행자들의 추천을 받아 에너지 중건기업에 우수인재 공급 및 인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건기업 특화 프로그램’ 7개 팀 중 ‘최우수 성과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과제운영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상 후보로도 선정될 예정이다.

김점수 교수는 “부산지역 이차전지 분야 최초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인 이번 사업이 지난 2년간 수행한 결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사업 기간 함께 애써준 동아대 참여 연구자들과 공동수행기관 참여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특히 지난 2년간 배출한 사업 수혜 학생들이 전문역량을 인정받아 전원 에너지 분야 기업에 취업해 사업단에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은 1단계를 잘 마무리하고 2단계에서는 최근 지역에서 중점 추진 중인 이차전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차전지 산학협력 HUB’ 구축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점수 책임교수



신평장림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목표 및 비전



‘2024년 에너지혁신인재 포럼’ 에너지 인력양성 성과 교류회 중건기업 특화 프로그램 분야 ‘최우수 성과상’ 수상

## 2024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연차평가 A등급 받아

동아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연차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동아대는 이로써 기존 배정된 포물러 사업비(기준경비·규모교육여건 지수 등을 고려해 배분된 사업비) 30억 원에 연차 평가 인센티브 57억 원을 더해 총 87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대학혁신지원사업 3유형)'은 교육부가 대학-지자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비수도권 사립대 66개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동아대는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특성화 분야 융합대학 구축·운영', '학과 간 융합분야 연계 모듈 전공 등 신설·운영' 등 특성화 분야 학과구조 및 학사 제도 개편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추진한 실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동기 강화 및 기초 융합 학습 지원을 위한 멘토링 및 튜터 지원, 학습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 해결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이 '맞춤형 특성화 분야 지원'이라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또 특성화 분야 산업계 전문가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JA 교원 임용제도'를 마련하고, 사업 예산을 투입해 교육연구시설, 실험실습 기자재 등 특성화 교육인프라를 확충, 노후된 시설과 환경을 개선한 점도 좋은 점수를 얻었다.

동아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관계자는 "동아대는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가 참여하는 자산·학 거버넌스에 활발히 참여하고 특성화 분야별 관련 사업체와 지속적인 협업 및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더 강화하고 개선 사항은 면밀히 보완해 사업 마무리까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학협력 성과 확산 위한 혁신 행보 눈길

동아대가 통합 산학협력단을 기반으로 자산·학 협력 성공 모델을 안착시키기 위한 혁신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동아대는 동아대-동서대 산학협력단과 동아대 LINC3.0 사업단 주최로 '제3회 산학협력 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동아대는 해마다 산학협력 포럼과 산학협력 성과교류회 등을 통해 산학협력 성과 확산 및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제1차 산학협력 포럼은 '반도체·미래자동차'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의 장을, 제2차 산학협력 포럼은 '과학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확산 방안' 주제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동아대는 '제1회 전력반도체 지식산 K-포럼'과 '전력반도체 산·학·연 협력 강화 및 전력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동서대,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부산테크노파크와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앞서 동아대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사업단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사업' 부산권 이차전지 공유대학 MOU를 체결,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했으며 부산 수소 공유대학 MOU 체결, 수소 관련 대학(원)생과 연구소·기업체 재직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기술사업화를 통해 자산·학 협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동아대 산학협력단과 동서대 산학협력단은 독일(쾰른)슈타인바이스 한국센터(대표 서주원, 이하 슈타인바이스)와 '글로벌 기술사업화 기반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아대와 동서대, 슈타인바이스가 기술 협력 및 학술 교류를 통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협약을 통해 수익창출형 통합산단(산학협력단)에서 추구하고 있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앞으로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연계, 투자유치·컨설팅기술 지원기업 교류회 지원, 정부 사업 공동 추진 및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협력한다.



제3회 동아대학교 산학협력 정책 포럼



전력반도체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독일(쾰른)슈타인바이스 한국센터 업무협약식

## 청년 고용지원 사업 선정 2관왕 쾌거 취업지원 사업 날개 달다

동아대가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지원 사업 2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등 각종 취업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동아대는 올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신규 선정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거점형'으로 승격되면서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지원 사업 선정 2관왕을 달성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사업은 전국에서 40여 개 대학이 선정됐으며 대형(A유형)인 동아대는 앞으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비 9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거점)를 포함해 연간 17억여 원의 사업비로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시작, AI 기반 잡게어 시스템을 활용해 학생의 사회진출 준비를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K-Move 미국 해외취업사업'에 12년 연속 선정, 올해 모두 4억 6,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4개 과정을 운영한다. 선정된 전국 62개 기관 총 151개 과정 중 동아대는 전국 최다 과정으로, 운영 인원도 가장 많다. 지난 2013년부터 미국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는 동아대는 그동안 모두 50억여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며, 530명의 학생이 미국

에 취업했다. 동아대는 K-Move 사업 외에도 해외취업 희망자를 집중 관리하고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적극 펼쳐 2023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해외 취업자 수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한편 동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각 기업 HR 담당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채용·인재육성·노무관리·승진 등 HR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2024 HR 혁신 포럼', 동아대 대표 취업동아리인 '동아 리더스 클럽'과 '동아 프론티어즈' 등 130여 명이 참여한 '2024학년도 Dong-A 취업동아리 취업캠프', 동아대를 비롯한 5개 대학(동아대·부경대·경성대·동명대·동의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합 행사로 열린 '두드림(DO-DREAM) 진로취업 FESTA' 등 취업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취업동아리 출신으로 취업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멘토링 제공, 취업교육기금 기부 등 동아대의 선순환 취업지원 시스템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동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청년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5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개최한 '두드림(DO-DREAM) 진로취업 FESTA'



동아대 K-Move 스쿨 미국 글로벌 전문가 해외취업과정 16기 취업캠프 참가자들



동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최 '2024 HR 혁신 포럼'



동아대 '2024학년도 Dong-A 취업동아리 취업캠프'

국제교류 활동 활발

# 글로벌 동아 인재 양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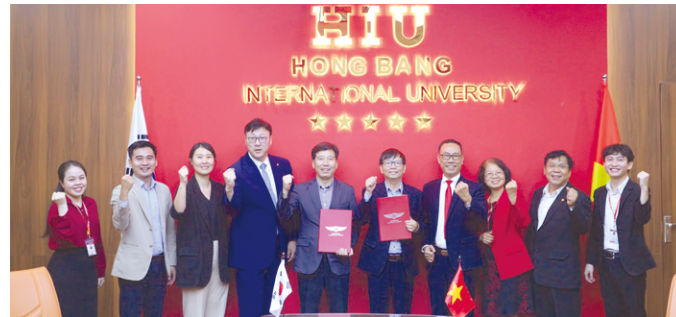
동아대가 국제교류 활동에 보폭을 넓히며 '글로벌 동아'를 향한 도약을 거듭하고 있다. 동아대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진행하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사업(GKS) '국제재건인재(한국어연수) 과정 수학대학'과 '우수교환학생' 사업에 모두 선정됐다. 그 결과 약 6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우수한 한국어학당 유학생 및 교환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동아대를 비롯한 전국 4개 대학이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국제재건인재(한국어연수) 과정 수학대학' 사업은 한국어수업(780시간 이상)과 문화특별 체험 활동, 직무연수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하며 사업 목표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인재양성이다. 따라서 매년 30명의 우크라이나 인재가 동아대에서 수학할 예정이다.

글로벌 파트너십 및 협력의 기반을 다질 유수의 해외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체결 또한 잇따랐다. 베트남 흥방국제대학교(Hong Bang International University)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2+2 복수학위 프로그램과 같은 학술 교류, 연구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관심분야에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사립대학협의회(ABPPTS) 및 상가 부아나 대학교, 팜방구난 판차 부디 대학교, 페칼롱안 대학교 등 16개 대학과도 협정을 맺었다. 이 협약을 통해 박사과정생 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태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문인 치앙마이대학의 총장을 비롯한 의대 학장, 한-태 전염병 연구센터 과장이 동아대를 방문했다. 치앙마이대학 방문단은 승학캠퍼스 도서관, 고기능성별브기술지원센터 등을 견학하고 동아대와 협력을 통한 바이오 분야 성과 창출에 관한 기대를 밝혔다. 하와이 소재 3개 교육기관과는 하와이주 고등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해우 총장은 "우수 고등학생 유치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스마트모빌리티CC 등 특화 분야의 인력 양성을 주도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3.0)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현지에서 '2024학년도 동남권 RISE 사업대응 전략 수립 및 지식산학 협력을 위한 벤치마킹 해외연수 과정'을 실시하고 교육부 및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체결은 유럽의 여러 국가와 학술적 교류 및 공동 산학 연구 협력의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대학 사업과 RISE 사업 유형별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대와 베트남 흥방국제대학교 관계자



동아대와 인도네시아 사립대학협의회(ABPPTS) 학술교류 협정 체결식 참석자들



동아대와 태국 치앙마이대학 관계자



동아대, 파키스탄 NUTECH, NRTC, STS로보테크(STS정밀) 업무협약 체결식

##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 든든한 지원 지역동반 성장을 위한 지·산·학 협약 체결

동아대가 부산시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전방위적인 교류에 나섰다. 동아대-동서대 연합대학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사하구청(구청장 이갑준)·서구청(구청장 공한수) 등 부산시 지자체는 물론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비스텍, 원장 서용철), 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 부산연구원(원장 신현석),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전우유),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 등 부산 소재의 다양한 기관들과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 추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동아대는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과 지역 현안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사업 유치, 기반 시설 관리·점검 기술개발 및 컨설팅, 현장 실증 참여기술 공유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위해 협력한다. 뿐만 아니라 수영구청과 업무협약도 체결, 지역문화인력 양성 지원, 수영구 문화브랜드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 교과·비교과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 참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을 위한 지·산·학 협력,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콘텐츠 발굴에 나선다.

## 동아대 교수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성과 발표

동아대 교수들이 세계적인 권위의 학술지에 잇따라 논문을 게재하는 등 주목받는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응용생물공학과 이선우 교수와 이상무 연구교수를 비롯,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식물 근권 미생물 간 공생 상호작용 기전과 기능을 밝혀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8년 'Nature Biotechnology'에 발표한 논문이 이어 미생물 생태학 분야의 세계 최고 저널인 국제미생물생태학지(ISME Journal, IF 10.8) 온라인 판에도 논문을 게재했다.

의약생명공학과 조완섭 교수는 세계 최초로 나노 물질의 체내 잔존량을 정량평가할 수 있는 ISO(국제표준) 2건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조 교수는 ISO 국제표준화기구 TC229(나노기술분과) WG3(나노물질 환경·건강·안전분야)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한국표준협회위원으로서도 국가표준 개발에 다수 참여했다.

의과대학 윤진호 교수 공동연구팀은 신경세포 미토파지 촉진 및 생존에 필수적인 핵심 유전자 발굴에 성공한 데 이어 새로운 미토파지 촉진 물질을 사용, '항암제 유도성 말초 신경병증'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윤 교수 공동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미토파지 기전 연구성과 세계적 학술지인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 과 'British Journal of Pharmacology'에 온라인 게재됐다.

화학공학과 김수환·구민수 교수 연구팀은 SCI급 국제 학술지 'ACS Applied Materials Interfaces'에 논문을 게재하고 보충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팀은 녹차 추출물인 '폴리페놀'을 이용해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고, 이를 아토피 모델에 적용해 면역 체계를 개선,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문한열 반도체학과·화학공학과(BK21 4단계 교육연구단) 교수팀은 초고유연·고성능·고압력범위 유연압력센서를 제작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저널 Back cover 논문으로도 선정됐다.

김혁순 바이오메디컬학과 공동연구팀은 신규 면역조절세포인 조절 선천성 림프구(regulatory innate lymphoid cell)의 세포 표현형을 발굴, 이를 이용한 검증성 피부질환을 억제하는 세포기반 치료 기전을 제시하고,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 최근호에 논문을 게재했다.

화학학 이승훈 교수는 화학 분야 상위 5%에 해당하는 권위지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 논문을 게재했다. '카이랄성 전이(Chirality Transfer)'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물질의 비대칭성을 탐구할 새로운 접근법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둔 이번 연구는 미국 오하이오대, 독일 뮌헨대 등 교수 연구진과의 국제 공동 연구 교류로 이루어졌다.



이상무 연구교수, 로니야 타파마가 박사, 정민경 석사, 이선우 교수



조완섭 교수, 윤진호 교수, 임상우 박사과정생, 정대진 박사과정생



엄지현 연구교수, 김영연 연구교수, 유은희 대표



김수환 교수, 구민수 교수, 한정민 석사



문한열 교수, 이승훈 교수, 김혁순 교수



김수환·구민수 교수 연구팀과 문한열 교수 연구팀 논문이 실린 학술지

## 동아대 교수들 연구 업적으로 수상 활약

동아대 교수들이 연구 업적으로 각종 상을 받아 학교 명예를 높였다. 패션디자인학과 이신영 교수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서 수여하는 '제3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대학원 의상섬유학과 배한이 석사과정생과 함께 한국복식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제로웨이스트를 활용한 한복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관한 논문을 발표, 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

대학원 재난관리학과 이동규 교수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분과 간사 및 위원을 맡아 활동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표창을, 재난안전문화 학술연구 및 입법지원 활동으로 국회의장 공로장을 받았다.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과연 낮지 않은가?: OECD 타 회원국과의 비교(2022년)' 주제로 2024년 비판학회 학술상 대안연구상을 공동수상했으며, 패션디자인학과 주나안 교수는 '2024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한국복식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우수사독상을 수상했다.

패션디자인학과 서추연 교수와 대학원 의상섬유학과 정임주 박사수료생은 '202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thing and Textiles'에서 우수사독상과 우수논문발표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패션디자인학과 전은하 교수는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전담해 지원하는 산학협력기반의 '대학 R&D 씨앗기획사업'에 선정됐다.



과총 '제34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이신영(오른쪽) 교수



이동규 교수, 전은하 교수, 남찬섭 교수

## 동아대 학생들 각종 대회 수상 잇따라

동아대 학생과 대학원생들이 각종 학술대회 및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연구비도 지원받게 됐다.

대학원 교육학과 정문숙(교육심리전공, 지도교수 조규판) 박사수료생은 (사)한국청소년학회 주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대학원 의상섬유학과 박예은 석사과정생은 '2024년 한국 섬유공학회 한국염색·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

대학원 윤혜진(건강과학과) 박사과정생과 전제석(바이오메디컬학과) 석사과정생은 '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장학생으로, 바이오메디컬학과 암대사학 연구실(지도교수 이종호) 박수환·윤혜진 대학원생은 '2024년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대학원 에너지자원공학과 선하나 석사과정생(지도교수 차중문)은 '한국자원공학회 2024년도 제122회 춘계학술발표회'에서 우수논문 발표상을, 일반대학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콘스탄자 솔레라도 알타미라노(Constanza Soledad Altamirano) 대학원생은 GKS(Global Korea Scholarship) '학업성적 우수상'을 수상했다.

방은아(한국어문학과, 리버럴아츠전공) 학생(2024년 2월 졸업)은 KCI(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 색인) 등재지 '인문사회과학연구'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비롯한 동아대 학생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한국광고총연합회 주관 '2024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부산·경남 지역대회에서 다수 수상하는 활약을 펼쳤다.



박수환·윤혜진 박사과정생



전제석 석사과정생, 방은아 학생, 정문숙 박사수료생



'2024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에서 수상한 'DD'팀 박예은(오른쪽에서 두 번째) 석사과정생

## 석당박물관, 특별전 및 정기 기획전으로 부산 문화 발전에 한몫

동아대 석당박물관이 의미 있는 특별전 및 기획전으로 부산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다. 박물관은 4월 30일부터 관람객을 대상으로 '부산 전차(국가 등록유산)'를 정기 개방했다. 부산 전차는 1927년 미국 신시내티에서 제작돼 애틀랜타에서 운행하던 것으로 1952년 미국 원조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들어왔다. 1968년 전국적으로 운행이 중단되며 부산 전차도 폐차 위기에 놓였으나, 당시 동아대 총장이었던 석당 정재한 박사가 남산전기 주식회사(한국전력의 전신)로부터 기증받았다. 동아대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부산 전차 보존처리 작업을 했으며 현재 석당박물관 관리하에 부민캠퍼스 야외에 전시하고 있다. 지난해 동아대 개교 77주년 기념 '부산 전차 특별전'을 통해 전차 내부를 대중에게 공개한 바 있으나 겨울철을 앞둔 11월부터 전차 보호를 위해 개방을 임시 중단했었다. 이번 정기 개방 시간은 매주 화요일 ~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이며, 우천 시에는 관람이 불가하다. **관람문의** 051-200-8493

또 지난 6월에는 2024년 대학박물관진흥지원사업의 하나인 '종이 위에 피어난 웃음꽃' 특별전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모두 함께 나눔'을 주제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유산 중 '선화', '지연장', '화해장'을 중심으로 한 총 3회의 전시 중 첫 번째 전시인 '종이 위에 핀 웃음꽃' 특별전은 6월 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열렸다. 성각스님 선화 작품 63점과 이지투게더(발달장애 아티스트) 작품 11점 등 총 64점을 선보였다. 지난 8월 27일부터 '연, 마음실어 바람타고' 기획전을 개최,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지연장 기능보유자 배우삼의 작품과 석당박물관 대표 소장품을 엮어 선보였다.



대학박물관진흥지원사업 기획전 '종이 위에 핀 웃음꽃' 개막식 참석 내빈 테이프 커팅식



성각스님 선화 시연 모습

## 국가유산 안내판 3개소 정비

동아대 석당박물관이 국가유산(문화재) 안내판 3개소 정비를 완료했다.

박물관은 지난해 3월부터 '국가유산의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 문안', '국민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안', '지역 문화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흥미로운 문안'을 목표로 안내판 정비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안내판을 정비한 국가유산은 석당박물관 건물인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를 비롯 '부산 전차', '삼층석탑'이다.

김기수 관장은 "동아대 석당박물관은 이번 안내판 개선 사업을 통해 국가유산 가치를 관람객 누구나 친숙하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관람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교내외 기관 및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업체 석당박물관이 대학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기반시설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대 석당박물관(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전경

## 명불허전 '스포츠 동아' 동아대 선수들 눈부신 활약

동아대 스포츠단 및 태권도학과 선수들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명불허전 '스포츠 동아'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야구부는 2024 KUSF 대학야구 U-리그 D조에서 9경기 8승 0무 1패 24승점 25실점 68득점을 기록하며 경상권 우승을 차지, 왕중왕전에 진출했다. 이 감독은 '감독상'을 수상했으며 손민찬(체육학과 4) 선수는 '우수투수상'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레슬링부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4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양준위(체육학과 4) 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김기중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다. 동아대는 이번 대회 개인전에서 금메달 7개를 휩쓸는 저력을 발휘했다. 동메달도 2개 수확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4학년 양준위(F61kg), 최원(F65kg), 차서현(F97kg), 3학년 채승훈(F92kg), 1학년 임지홍(F57kg), 김태빈(F79kg), 박지한(F86kg) 선수다.

태권도부는 '제23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주최로 강원도 삼척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대학부 단체전에서 권미서·김설(태권도학과 3)·김나람·김소연·최아름(태권도학과 2)·김형민(태권도학과 1) 선수는 용인대를 52대 38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특히 단체전 우승을 이끈 권미서 선수는 최우수선수상을, 서보경 코치는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편, 태권도 품새단은 '제23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 남자 단체전 3년 연속 우승, '제15회 상지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남자 단체전 3년 연속 우승, '제21회 계명대학교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 남자 단체전 및 여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는 등 2024년 상반기 열린 각종 전국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 태권도부와 호주 태권도 대표팀 합동훈련 실시

동아대를 방문한 호주 태권도 대표팀과 동아대 태권도부 선수들의 합동 훈련이 진행됐다. 이석훈(동아대 체육학 박사) 호주 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코치, 선수 등 모두 18명이 2024년 파리 올림픽 대비 전지훈련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중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호주 대표팀 선수 4명은 인천선수촌에서 1주일간 진행된 한국호주영국대만 등 4개국 국가대표팀 합동 전지훈련 참가 전에 동아대를 방문, 한 주 동안 훈련을 진행했다.



'2024 KUSF 대학야구 U-리그' 경상권 우승을 차지한 동아대 야구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동아대 태권도부 선수들과 이동주(가운데) 감독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4연패를 달성한 동아대 레슬링부



동아대 태권도 품새단



# 동아가 무르익는 시간

꿈과 실력이 무르익고 나눔으로 단단하게 엮인 시간의 단편들.  
낮선 모습이 친근해지고, 함께 어울릴수록 깊어지는 삶을  
경험한 동아인의 봄과 여름. 그 순간들을 펼쳐 본다.



# DONG-A

The time when the donga is ripe



## #떠나다 #함께하다

### 학생 해외봉사

태국 방콕 & 촌부리 일대(1. 20 ~ 1. 26)

가는 길은 멀었지만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하니  
그 시간도 감사해요.



## #새롭다 #기대하다

### 동아리 박람회

승학캠퍼스 뉴턴공원(3. 19 ~ 3. 21)

새 친구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 #청춘이다 #누리다

### 봄 축제

승학캠퍼스 뉴턴공원(4. 29 ~ 4. 30)

몰입해서 공연을 즐기는 분위기가 좋아요.  
이 넓은 공간을 가득 채운 열정은  
말할 것도 없죠.



## #익어가다 #나누다

### 하계 농촌봉사활동

경상남도 거창군 일대 8개 마을(6. 24 ~ 6. 29)

낮선 환경이었지만 완성이라는  
같은 목표가 있으니까  
단결할 수 있었어요.





## 부산의 로컬리더· 산업 생태계와 가장 가까운 대학을 향해

“ 학생이 산업현장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길 ”

CHOI  
JUNG  
HO



## 동아대와 부산의 성장을 이끌 기틀을 다지다

LINC3.0 사업단 **최정호** 단장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RIS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사업단장

**Q** 대우조선해양연구소(한화오션의 전신)에 계시다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님이 되셨어요. 어떻게 동아대학교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해양 관련 산업이 급부상할 때 동아대에 조선해양공학과가 신설됐어요. 그때 이해우 총장님이 산업체 경력을 바탕으로 '실무교육'이 가능한 교수진을 기용하면서 동아대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기자재 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및 지원사업을 했던 경력을 살려 LINC3.0 사업단의 기업지원 센터를 맡았었고, 지금은 단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수소와 2차전지를 다루는 'RIS 클린에너지 융합부품소재 사업단'도 맡고 있어요. RIS 사업은 부산에서만 11개 대학이 참여하는 일종의 공유대학인데 동아대가 주관 대학교예요. 클린에너지 사업은 미래 에너지사업의 핵심이자 부산의 산업생태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책임감을 느낍니다.

**Q** LINC 사업 역사가 오래됐고 사업 규모도 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LINC3.0 사업단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LINC3.0은 산업체, 학교, 연구소가 공동으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단 이름인 LINC가 교육, 산업,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고 서로 연결한다는 의미죠.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다품종 소량생산'인데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더 이상 같은 정규교육을 마친 30~40명의 학생이 같은 직군에 한 번에 취직할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동아대 LINC3.0 사업단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학교가 정규교과로 편성하기 힘들지만 기업체는 요구하는 내용을 특성화 교육, 현장 실습 같은 비교과 교육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해요.

**Q** 지역산업 생태계와 교육시스템을 모두 고려하는 사업이었던군요.

맞아요. 학생들이 현시점 산업 생태계에 최적화된 인적자원으로 성장해 산업현장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과 교육에 재직자 수강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강 구성원이 바뀌니 재학생 수강생들이 달라졌어요. 교과과정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던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걸 들으면서 지금 배우는 것이 진짜 필요한 내용이라는 걸 깨닫더라고요. 성취도가 오르고 특별한 목표 의식이 생겼어요. 비교과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현직자들과 소통하다 보면 진로 설계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설정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비교과는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교육을 요청하면 함께 진행합니다.

**Q** 현재 산업 생태계와 동아대가 중시하는 '실무교육'을 고려한 주력사업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해 ICC(Industrial Cooperation Center 기업협업체)센터를 구축한 특성화 분야는 미래에너지(수소), 라이프케어(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LINC3.0과 RIS 사업은 지방대육성사업과 함께 RISE 사업으로 통합돼요. 내년 사업 개편을 고려해 '디지털 공공안전', '그린바이오헬스케어'와 '휴먼디지털헬스케어'를 pre ICC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 평가 등급을 잘 받은 일이 기분 좋습니다. 동아대 LINC3.0 사업단이 동남권 대학 중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아서 내년 예산을 잘 배정받았어요. 일이 힘들어도 성과를 이루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뿌듯하잖아요. 또 우리 사업단은 조선 업계 내 혁신을 이룬 선보공업과 지속적으로 현장실습 및 테크톤을 진행하고 동아대 학생들이 취직해 왔는데, 서로에 관한 긍정적인 후기가 들려올 때 만족스럽습니다.

**Q** 동아대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업무량이 많아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단 구성원들이 모두 솔선수범이 몸에 배었고 상호보완하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일에 모자람이 없게 하려고 '나는 일을 배우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로컬리더, 산업 생태계와 가장 가까운 대학이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스스로 변화·혁신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

‘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 ’

# BANG SEONG BIN



## 변화를 성장으로 이끄는 충실한 기본을 증명하다

BNK부산은행 **방성빈** 은행장  
법학과 83학번

**Q** 2023년 4월, 14대 은행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정말 실 틈 없이 바쁘셨어요. 최종 결정 때부터 지난 1년간을 복기해보신다면요?

은행장으로 최종 선임됐을 때는 앞으로 '은행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나, 또 '어떤 은행을 만들어 나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부담이 컸습니다.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도 했고요. 그래서 취임 후 최우선으로 했던 일이 거래 기업체를 방문해 은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취임시 직원들에게 부산은행의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를 위해 1년간 부울경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해외까지 100여 개의 거래기업체와 150여 곳의 부산은행 전 영업점을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없던 이례적인 행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7월에는 경영전략회의 석상에서 지점장들과 실시간 오픈 채팅으로 '은행장과의 허심탄회한 대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밸런스 게임'을 그때 처음 접해봤어요. (하하)

**Q** 1989년 입학 후 '부산'을 대표하는 은행에서 오롯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은 친구들에게 공부 비결을 물어보면 '교과서와 학교 수업에 충신했다'고 하지요. 저 또한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특히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장 취임 이후 직원들에게 '변화를 외면하는 기업에는 미래가 없다'고 줄곧 강조하고 있어요. 아울러 개인보다는 조직을, 혼자보다는 함께 하려는 노력이 매순간 더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Q** 영업점장을 거쳐 내부통제 부서인 감사부에서 본부부서 부장을 시작 하셔서 재무, 전략, 해외 등 정말 다채로운 부문에서 활약하셨어요. 대학 때 소위 '떡잎이 다른' 학생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정말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다른 친구들 처럼 공부하고 놀고 과제하고... 지금도 사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집밥 좋아하고 주말에는 트래킹을 즐기고요. 은행에서는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감사부 부장, 준법감시부 부장으로 시작했지만 경영기획본부장과 경영 전략그룹장을 맡아 전략, 재무 업무를 총괄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경영기획본부장 시절 해외사업을 담당했을 때 중국의 두 번째 지점 개설을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을 7번 방문했었지요. 그리고 6개월 만에 난징지점 인가를 받아 중국 내에서 외국은행 지점 최단기 인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Q** 평범했다고 하셨는데, 그간의 행보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장의 계기가 됐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업무를 담당했을 때와 연수원 담임교사 시절이 '은행원 방성빈'을 성장시킨 가장 큰 바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직원들을 지도하면서 저 또한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항상 정도(正道)로 생각하고 일하자' 다짐했고 그 생각은 저만의 신념이었어요. 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확고한 철학도 자리잡았고요. 해외사업을 주도하면서도 시야와 안목을 넓히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머물러 있지 말고 도전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다졌습니다. 그중에서도 '기본을 체득할 수 있었던 시기가 개인적으로는 저의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기본을 충실히 다지면서 더 크고 단단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경험'을 통해 쌓은 공력이 느껴지는데요, '나만의'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 창업주이신 정주영 회장의 말씀들을 인생의 좌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된다'라는 말은 직원들에게도 자주 합니다. 최근에 우연히 본 드라마에 나온 대사도 비슷한 결이었는데,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길을 찾지 마세요. 그냥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하세요. 그러다 성공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한계를 두기보다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포부와 희망으로 열심히 본인의 길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저도 지역기업의 대표로서 더 많이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드라마 <대행사> 16화 중



## 고도가 높아질수록 넓어지는 마음의 지평

“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잡아야만 비로소 진짜가 되는 것 ”



왼쪽부터  
이수지 여정윤 이호선

## 아콩카과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을 따랐어요

산악부 | 62기 기계공학과 19학번 이호선(회장, 회계)  
다우악 | 64기 도시공학과 20학번 이수지(의료)  
64기 도시공학과 20학번 여정윤(식량)

**Q 동아대학교 산악부 '다우악'에 입부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다우악은 1958년에 만들어져 1962년에 정식으로 등록된 동아리입니다. 62기인 이호선 학생은 아버지가 '다우악' 부원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다우악에 입부했고 64기인 이수지, 여정윤 학생은 친구라 함께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를 찾다가 입부했어요. 꾸준히 등산과 등반, 빙벽, 알파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아콩카과 원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왔어요. 거리와 비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OB(동아대 산악회) 선배님들이 아콩카과 산을 등반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다들 궁금해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학사일정까지 겹쳐서 내심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OB선배님께서 "YB들끼리 다른 일정으로 가면 된다"라고 제안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부원들끼리 우리도 해 보자는 목적의식이 싹텄어요. 대책 없이 가는 걸 수도 있지만 고산에 가 볼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늦게나마 팀을 꾸려 승학산에서 훈련을 시작했고 여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지만, 주어진 기회를 잡는지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아콩카과산 등반뿐만 아니라 등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얻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콩카과산(Aconcagua): 아르헨티나 서부에 있는 안데스산맥의 최고봉이다. 높이 6,962m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로는 '경외할 만한 산'이라는 의미다.

\*고산등반: 해발고도 3,000m 이상의 산을 등반할 때 고산등반으로 일컫는다.

**Q 다우악은 오랜 전통과 등반 성과로 굳은 입지를 다져왔고 OB의 내리사랑으로도 유명하죠. 이번 등반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다우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온 체계는 어떤 산행이건간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다우악이 큰 사고 없이 7대륙 최고봉 등정을 완성하고 수많은 해외 원정까지 해낼 수 있었던 힘이죠. 거기다 다우악에는 원정을 다녀올 때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한 성패 요인을 기록한 '원정보고서'가 있어서 후배들이 이 보고서를 읽고 원정에 필요한 회계, 식량, 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학습할 수 있답니다. 그래도 궁금한 부분은 선배님께 직접 여쭙볼 수도 있고요.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 이번 원정에서 필요한 고가의 장비가 있었는데 직접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무작정 선배님께 '원정을 다녀오게 됐는데 장비를 빌려달라'는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도 흔쾌히 내어주신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장비 특성상 깨끗하게 돌려드리기 힘든 건데요. 등반을 준비하는 내내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고, 저희의 사전 훈련을 보고 따끔한 충고도 해 주셨습니다. 원정을 가는 중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지 계속 생각나서 큰 힘이 됐어요.

**Q 아콩카과산을 등반하며 새롭게 느낀 점이나 달라진 점이 있나요?**



사실 등반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못 먹고, 못 씻고 힘든 상태로 동료와 함께 있으면 서로의 낯것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시기를 함께 잘 넘기면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웬만큼 힘든 일을 겪어도 '아콩카과산에도 올랐었는데 이 정도야라며 넘어갈 수 있게 됐고,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너그러움도 갖게 되죠. 익숙한 도시의 풍경에서 벗어나 광활한 자연의 풍경만을 눈에 담는 경험은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어요. 산을 오르며 느끼는 배고픔, 슬픔, 기쁨, 힘겨움, 서로에 대한 배려... 이 모든 경험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다음에는 설산에 오르겠다는 목표 의식도 생겼고 저도 더 부지런해졌어요. 어려모로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특히 기록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돼서 함께 책도 쓰고 있어요.

그러움도 갖게 되죠. 익숙한 도시의 풍경에서 벗어나 광활한 자연의 풍경만을 눈에 담는 경험은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어요. 산을 오르며 느끼는 배고픔, 슬픔, 기쁨, 힘겨움, 서로에 대한 배려... 이 모든 경험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다음에는 설산에 오르겠다는 목표 의식도 생겼고 저도 더 부지런해졌어요. 어려모로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특히 기록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돼서 함께 책도 쓰고 있어요.

**Q 끝으로 동아대 구성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학업이나 자격증, 취업처럼 현실적인 목표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시야를 넓히고 세상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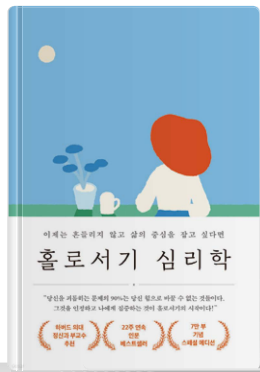
# 채움의 시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읽기

누구나 손끝과 물아일체가 된 스마트폰 때문에 도파민 중독을 고민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동아대학교 도서관이 이번 가을, 숏폼 콘텐츠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재밌고 감성 충만한 책 12권을 소개한다. 도파민 해독으로 시간 가는지 몰라도 반납은 잊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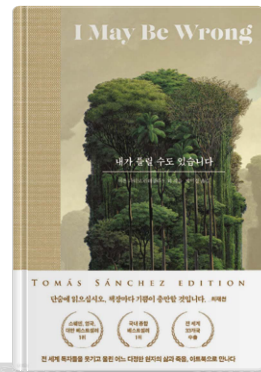
# DONG-A

Time to fill. Slow And Constant Rea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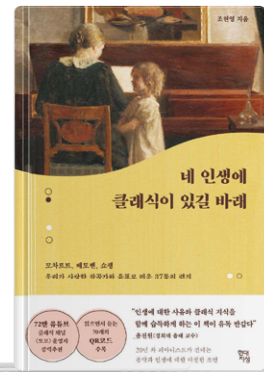
**홀로서기 심리학**  
라라 E. 필딩 지음

행복은 단단한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것. 흔들리지 않는 삶의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 지음

인생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삶 속에 평화를 가리키는 나침반을 발견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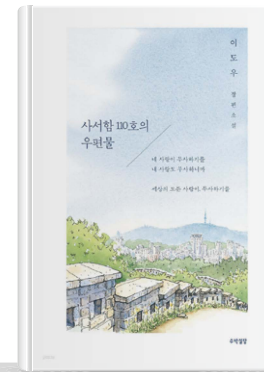
**네 인생에 클래식이 있길 바래**  
조현영 지음

클래식으로 배우는 인생 수업. 클래식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일상 속 클래식의 힘을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사찰여행**  
유철상 지음

고즈넉한 분위기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찰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때요? 단풍구경도, 템플스테이도 좋습니다.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이도우 지음

"네 사랑도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잔잔하고 깊은 여운이 남는 소설. 설렘과 아스라한 감성에 젖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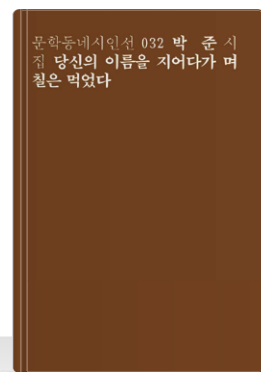
**이토록 지적인 산책**  
알렉산드라 호로비츠 지음

각자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다른 세상. 집중할수록 커지는 매력적인 그사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늘과 가족의 시**  
구병모 지음

영겁을 사는 구두장이의 이야기에서 유한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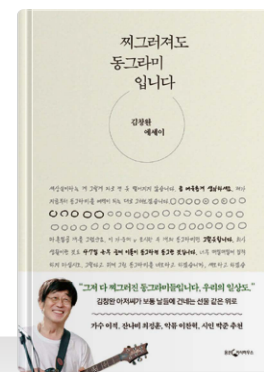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박준 지음

어쩌면 잊혔을 수도 있는 이름을 시인은 시로써 기억합니다. 인생에 대한 아름다운 글을 만날 수 있는 젊은 시인의 시집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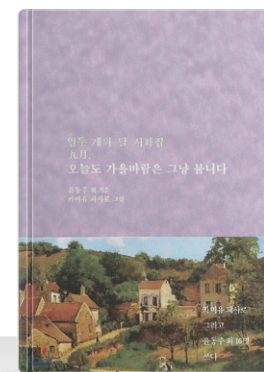
**오늘도, 등산**  
신영은 지음

화려한 호캉스보다 자연 속 숲캉스는 어떤가요? 올해 가을, 당신을 산으로 초대합니다.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김창완 지음

김창완 아저씨가 들려주는 매일 아침의 일상들. 소박함과 발맞춘 감동의 조각들. 이제는 책으로 만나보세요.



**오늘도 가을바람은 그냥 불니다**  
윤동주 외 지음

명사와 인상파 화가 카미유 피사로의 그림이 함께 실린 시화집. 다양한 작가들이 표현한 가을을 느껴보세요.



**오티움**  
문묘한 지음

뜻대로 되지 않는 삶. 휴식이라도 내 뜻대로 즐겨봐요.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오티움 하는 법.

## 신정택 총동문회장(세운철강(주) 회장)

### 모교 발전기금 2억 원 쾌척

신정택 총동문회장(세운철강(주)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부민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엔 이 총장과 신 회장, 박현태 대외국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글로벌대학 사업 선정을 향한 모교 구성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기부가 학교 발전에 생동감을 불어 넣고 동문들의 기부 물결에도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모교에 누구보다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신정택 회장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통해 수익형 통합 산학협력단과 미래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B-헤리티지 등 특화 분야를 중점으로 한 '부산 개방형 MEGA 연합대학' 모델을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9~20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2015~2021년) 등을 역임했으며 사회공헌에도 앞장서 지역민들의 큰 신망을 얻고 있는 신 회장은 지난 1978년 세운철강(주)을 창립, 철강 외길을 걸어오며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키워냈다. 지역 발전에 앞장선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2015), 대한민국 창조경제리더 대상(2013), 자랑스러운 시민상 대상(2012), 부산시민산업대상(2009)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기업인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는 신 회장은 지금까지 모교인 동아대에 14억 원 이상을 기부한 것을 비롯, 사회와 교육, 스포츠,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100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신정택(왼쪽) 동아대 총동문회장과 이해우 총장

## 김상헌 DN오토모티브 회장

### 학교 발전기금 6억 원 쾌척

김상헌 DN오토모티브 회장이 학교 발전기금 6억 원을 쾌척했다.

김 회장은 동아대에 장학금과 발전기금 등 모두 120여억 원을 회사하고 지난해 10월 작고한 청춘故 김만수(동아대 건축토목과 1956년 졸업) 동아타이어 회장의 아들이다. 고인의 유지를 이어 동아대 교내외를 통틀어 최대 규모인 청춘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자동차 방진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DN오토모티브와 공작기계 제조업체 DN솔루션즈를 양대 축으로 하는 DN그룹은 공작기계와 차량용 방진 부품 분야 국내 최대, 세계 3위에 이르는 기업이다.

김 회장은 “돌아가신 선친께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던 모교이자 지역 명문 사학 동아대의 영원한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며 “지역에서 출발한 기업으로서 지역대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헌 DN오토모티브 회장, 이해우 총장 등 발전기금 전달식 참석자들 기념촬영



## 안영구 (주)유니크 대표이사 회장

### 석당박물관 발전기금 1억 원 쾌척

안영구 (주)유니크 대표이사 회장이 석당박물관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1971년 창립한 (주)유니크는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시계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자동변속기용 슬레노이드밸브, 수소연료전지 제어밸브, 냉매제어밸브, SBW액추에이터 등을 잇따라 개발하며 글로벌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 2022년 동아대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 우수인력 양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안 부사장은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명문사학 동아대의 자랑인 석당박물관이 지역문화 선도 거점으로 역할을 굳건히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기부에 감사드리며 지역문화의 거점 석당박물관이 국제적인 복합문화 선도기관으로 나아가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수(맨왼쪽) 석당박물관장, 안재범(맨오른쪽) (주)유니크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B국민은행

### ‘천 원의 아침밥’ 후원금 5,000만 원 기부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 지역그룹이 ‘천원의 아침밥’ 후원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동아대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총장은 “기존에는 ‘천원의 아침밥’을 시험기간에만 제공했는데 KB국민

은행의 든든한 후원으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으며, 이혁 KB국민은행 부행장은 “내년에는 더 힘을 내서 후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는 이번 기부를 통해 6월 한 달간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했고 2학기부터는 전체 기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해우(왼쪽) 동아대 총장과 이혁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 지역그룹대표(부행장)



동아대와 KB국민은행 관계자들



## 후배사랑 취업교육기금

7억 원 돌파



동아대 취업동아리 취업캠프 모습

사회에 진출한 동아대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후배사랑 취업교육기금’ 누적 모금액이 7억 원을 돌파했다.

동아대 취업교육기금은 취업한 선배들이 후배들의 취업을 위해 매월 1~2만 원씩 정기 기부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모두 4,300여 명의 졸업생이 참여했으며 모금을 시작한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누적 모금액이 7억 2,600만여 원을 기록했다.

동아대는 이 기금을 역량별·학년별 취업캠프 및 취업동아리 운영, 스터디룸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재직선배초청 직무교육과 취업특강 등 동문 선배가 직접 후배교육에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900여 명의 멘토가 활동하는 온라인 취업멘토링 시스템 ‘DA-ITDAA(다잇다)’를 통한 멘토링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다.

동아대 취업교육기금 모금과 후배 교육활동은 학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이 다시 후배들의 교육에 참여하는 동아대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의 ‘선순환 취업지원 시스템’ 토대로 자리 잡았다.

## 경영대학원 AMP(최고경영자과정) 제57기

### 대학 발전기금 3,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제57기 수료식에서 장성혁 회장을 비롯한 57기 원우회 일동은 대학 발전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월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수료식엔 이 총장과 신정택 총동문회장, 본부보직자, 박동진 제49대 AMP 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회 관계자,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1969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3,200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동아대 AMP는 최고경영자가 갖춰야 할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문화예술, 리더십, 글로벌 환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장성혁(오른쪽) AMP 제57기 원우회장과 이해우 총장



## 염규창 (주)핸드텍 대표

###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39기인 염규창 (주)핸드텍 대표가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주)핸드텍은 2014년 2월 창립, 다양한 산업용 안전장갑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자체 기술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소재 발굴 및 기술 개발로 내절단성이 강하고 착용감이 우수한 장갑을 지속적으로 개발, 미국·일본·유럽 등 전 세계 시장에 산업용 장갑을 수출하고 있다.

염 대표는 “동아대 경영대학원 발전과 후배 양성에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며 “베트남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베트남 유학생 취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규창 (주)핸드텍 대표(가운데), 염근호 부장(오른쪽)

## MBA(경영학석사)이재환·한호중·박효철 동문

###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5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석사(MBA) 총동문회 제27회 정기총회 및 2024년 회장 이취임식에서 ‘자랑스러운 경영인상’을 수상한 이재환(45기) 동문과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을 수상한 한호중(55기)·박효철(55기) 동문이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엔 이 총장과 신정택 총동문회장, MBA총동문회 임원 및 동문 등이 참석했다.



이해우(맨왼쪽) 총장과 송기영(맨오른쪽) MBA 총동문회장 및 발전기금 기부자들

## 성기진 동명산업(주) 대표

공과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성기진(기계공학과 82학번) 동명산업(주) 대표가 7대륙 최고봉 등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기념으로 공과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산악회 회장이기도 한 성 대표는 경영대학원 AMP(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34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동아대 공과대학은 성 대표의 뜻을 기려 '공과대학 도전장학금'을 조성, 동아대 산악회 YB팀(조현세·이호선/기계공학과 4, 이수지·여정윤/도시계획공학과 4), 공대 학생회장 양희준 학생 등 5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성기진(왼쪽) 동명산업(주) 대표 공과대학 도전장학금 수여식

## 재단법인 진여원

공과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재단법인 진여원이 공과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재단법인 진여원은 지난해에도 동아대 공과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 공과대학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재단법인 진여원 상임원장 정경 국원은 "진여원의 철학적 메시지가 담긴 발전기금을 전달해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다.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진여원 영준국원(왼쪽, 부산지부장), 재단법인 진여원 정경국원(오른쪽, 상임원장)

## 최문식(경영대학원 MBA 57기) 원우회장

경영대학 발전기금 릴레이 57호 기부

최문식 MBA 57기 원우회장이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다우이스트 기프트(DAUIst Gift) 고액 릴레이 기부 제57호 주자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최 회장은 58기 신입생(50명), 56-57기 재학생, MBA 총동문회 송기영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MBA(석사학위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식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최문식(오른쪽) MBA 57기 원우회장

## 레슬링부 학부모 일동

레슬링부 발전기금 1,500만 원 기부

스포츠탄 레슬링부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이 스포츠탄 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부했다. 레슬링부는 '제42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10개 체급 중 8개 체급에 출전, 7개의 금메달과 2개의 동메달을 휩쓸며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지난 2021년 제39회 대회부터 시작해 4년 연속 우승 쾌거를 거뒀다. 1963년 창설된 동아대 레슬링부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대한민국 첫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 양정모 선수, 1984년 LA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손갑도 선수, 1986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 김명구·이상삼 선수 등을 배출한 명문이다.



레슬링부 학부모들과 우진희(왼쪽 네 번째) 스포츠탄장, 김기중(왼쪽 세 번째) 레슬링부 감독



## 법학전문대학원 12기 졸업생 12명

발전기금 1,200만 원 기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2기 졸업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발전기금 1,200만 원을 기부했다. 박혁(로앤텍스 법률사무소)·최봉석(법무법인 무한)·양재성(법무법인 해인)·양동원(법무법인 나침반)·강동구(법무법인 로펌나무)·기정현(법무법인 국제)·김병건(법무법인 사)·김태우(법무법인 무한) 변호사, 서동훈(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이덕영(법무법인(유한)정인) 변호사, 이준영(서울중앙검찰청) 경감, 정다형(부산지방법원) 재판연구원 등 12명이 기부에 참여했다. 한편 올해 동아대 로스쿨 13기 광동주 졸업생 등 13명이 3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박혁(로앤텍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운데)

##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동문회

학과 발전기금 500만 원 기부

화학공학과 동문회(회장 허원석)가 경주 신라CC에서 지난 5월 열린 '제1회 동아대 화공과 동문 친선 골프대회' 행사에서 화공과 후배들을 위해 화공과 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동아대 화학공학과 1회 졸업생인 박동원(67학번) 전 부총장부터 2020학번까지 전국에서 모인 동문 11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화공과 동문 모두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단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 동문회장은 "동아대 화학공학과 60주년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동문회가 전열을 정비하게 돼 기쁘다"며 "화학공학과가 더욱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회 동아대 화공과 동문 친선 골프대회 발전기금 전달식

##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

익명으로 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생명자원과학대학 모 교수가 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모 교수는 최근 대외국제처 대외협력과를 찾아 제자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써달라며 해마다 1,000만 원씩 앞으로 5년간 모두 5,000만 원의 학과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본인의 기부 사실을 알리기를 한사코 사양한 이 교수가 그동안 일시납 또는 월납 형식으로 꾸준히 동아대에 기부한 발전기금은 이외에도 3,600여만 원에 이른다. 박헌태 대외국제처장은 “교수님의 제자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고 기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 씀씀이에도 존경을 표한다”며 “기부해 주신 발전기금은 학과에 잘 전달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대 생명자원과학대학 전경



## 위광재 (주)지오스토리 대표

조경학과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주)지오스토리 위광재 대표가 조경학과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위광재 대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측량 및 지적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다. 그는 2012년 항공우주, 해양정보, 지하공간, 모빌리티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주)지오스토리를 창업해 경영 중이며 (주)지오스토리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젊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위 대표는 “이재원 교수님의 인연으로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됐고 김용석 교수님과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며 “조경학과 발전과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패기 있는 젊은이들이 열정으로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전기금 전달식 참석자들

##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지난 시간 동아대는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양성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동아의 미래 발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동아대학교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 가입혜택

-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달력 및 소식지 발송

### 발전기금 기부현황 (2024년 1월~2024년 6월)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단체

(재)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주)지앤지코퍼레이션	법률사무소 규리	(주)국민은행
(주)HKM	(주)지엔시	변호사 김병헌 법률사무소	(주)비에스루브
(주)건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DN오토모티브	부산지방변호사회	주식회사 애드위너
(주)네오텍	GS코어	비케이메탈	주식회사비티엑스모빌리티
(주)메디파워	거제리 명가	숲속심리언어상담센터	(주)지오스토리
(주)메종건축사사무소	김태현변호사법률사무소	유카로오토모빌(주)	한방유비스(주)
(주)비에프씨씨	덕천필부과의원	윤석중법률사무소	한양마디시원 정형외과의원
(주)에듀피플스	AMP 57기 원우회	인사이트 법률사무소	
(주)유니크	국제전문대학원 박사기	재단법인 진여원	
(주)유디엠	미래넷	(주)KB데이터시스템	

####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후원의 집

(주)올복스	동원장수촌	소중환이치과의원	초유플라워
금호횃집	밝은눈안과의원	송월타울	카플러스
누리마을감자탕	밝은봄안과	송이아구점	투썸플레이스동아대점
대궁삼계탕	본가사하점	아이시티안과의원	파리바게뜨부민점
대물림 청송집	산정	어심초밥	플로르델리아
대훈기획	상록광고기획	영의루	흥부가
더진국하단점	선미집	이모식당	
도리원	성일숯불갈비	진선	
동경초밥	소담	초원복국	



동아대 이해우 총장과 태권도 시범단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 개인

강금순	고윤성	김경희	김명숙	김성현	김인자	김진순	김희경	문상진	박성제	박지혜	백영기	손광석	신승욱	어주영	유동열	이강배	이보람	이용발	이주성	이혜숙	장준봉	정성규	정현진	주형준	최상석	추상욱	현연수
강기수	고재연	김광란	김명중	김세훈	김일근	김진용	김희경	문선영	박성혁	박지혜	백종국	손민근	신영아	엄성혜	유병철	이강욱	이상봉	이용석	이주영	이혜원	장지현	정성욱	정형일	조오빠	최상윤	추성호	현창욱
강나현	고홍수	김구	김문범	김소현	김일영	김진웅	김희돈	문영주	박세영	박진익	백차승	손상현	신영완	엄성혜	유성호	이경민	이상엽	이용원	이주영	이혜진	장지환	정성욱	정혜선	지강이	최서현	추현국	형민아
강남욱	공경란	김구연	김미란	김수련	김재한	김진원	김희선	문요한	박세준	박진영	백희자	손석주	신용우	엄예연	유수영	이경열	이상완	이용은	이주영	이호재	장현정	정성원	정호광	지신인	최석열	탁규만	홍남식
강누빈	공미정	김권민	김민수	김수자	김재현	김진윤	김희준	문진호	박소연	박진영	변상민	손재홍	신용택	엄일용	유승진	이경용	이상용	이용희	이주현	이호진	전경수	정성훈	정호균	지신자	최선미	표용희	홍상혁
강다연	공병민	김권호	김민수	김수정	김재현	김진형	나마타파	문철주	박소연	박지원	변선영	손정순	신용호	에비안데이터베이스	유승희	이경운	이상원	이용희	이주형	이호균	전계훈	정세영	정호원	지혜연	최성문	하고운	홍서영
강대성	공윤종	김규범	김민원	김수진	김재홍	김진홍	나웅	민영기	박소영	박찬규	변성우	손정한	신윤호	여승현	유영현	이경태	이상준	이용건	이준석	이호중	전관수	정수진	정호묵	진경천	최성수	하광봉	홍순권
강동구	공혜경	김규한	김민정	김순진	김재홍	김진호	나진숙	민혜숙	박수천	박창구	변성철	손종윤	신재봉	여태규	유재룡	이경학	이상진	이원구	이준숙	이홍재	전미라	정수희	정훈	진병래	최수호	허기영	홍순환
강동울	곽기혁	김근민	김민주	김승민	김재홍	김창석	남경문	박경렬	박수호	박창석	변성호	손창현	신재욱	여호근	유재열	이경환	이상진	이원빈	이준영	이희성	전민경	정숙희	정희원	진소영	최승환	하민호	홍영습
강동일	곽길수	김근우	김민철	김승우	김점수	김창오	남광호	박경만	박순영	박창열	변영철	손재훈	신정현	연진흙	유재욱	이경훈	이상호	이원호	이준용	이희원	전상학	정승민	제갈진우	진영주	최승환	하상현	홍용석
강동현	곽도훈	김기수	김민철	김승일	김정근	김창완	남명구	박경미	박소우	박창현	변영학	손태중	신정환	염규창	유정욱	이경훈	이서윤	이원호	이준희	이희정	전성욱	정승봉	조경근	진윤달	최신애	하승태	홍지영
강동훈	곽동주	김기수	김민하	김승태	김정규	김창훈	남보현	박경식	박승중	박재오	변진해	손판도	신중섭	염정국	유재은	이경희	이서정	이원희	이중경	이희정	전성웅	정연봉	조규판	진재윤	최애은	하승훈	홍종원
강동훈	곽명서	김기영	김민형	김승호	김정대	김채수	남상돌	박경애	박시윤	박철현	변행석	손하은	신지윤	염창홍	유현우	이고은	이석숙	이은숙	이중나	안정만	전성현	정영균	조동길	진종길	최영숙	하은희	홍지원
강래욱	곽미진	김기정	김민희	김시동	김정득	김춘덕	남상설	박경우	박인주	박철홍	사정훈	손현준	신창엽	오민홍	유형욱	이광식	이선명	이은영	이지나	임미경	전수민	정영진	조민형	진주한	최영익	하정현	홍지윤
강명자	곽선화	김기중	김범수	김아현	김정미	김춘영	남승덕	박경원	박영란	박태위	서광민	손현진	신현범	오성민	유현재	이광환	이선우	이은임	이지연	임병찬	전아영	정영진	조민성	진태훈	최영일	하정훈	홍현두
강명진	곽성은	김나량	김병건	김애희	김정민	김춘호	남승찬	박경환	박영일	박한솔	서대관	손현태	신호민	오선문	윤가연	이권희	이선전	이은정	이지연	임상호	전안찬	정영현	조민제	차경천	최영주	하주희	홍해정
강명호	곽은희	김나현	김병국	김양근	김정석	김태근	남승현	박광원	박영일	박한신	서동균	손형수	신흥기	오성배	윤갑식	이귀현	이선주	이은주	이지영	임석준	전용기	정욱재	조범근	차동환	최영진	하진숙	황경원
강문성	곽형린	김나현	김병권	김양이	김정선	김태수	남윤성	박광춘	박영태	박해일	서동훈	손홍락	신회진	오성용	윤경규	이규업	이선하	이은지	이지욱	임소연	전윤정	정우진	조상호	차병철	최영호	하춘목	황국
강봉순	구관희	김남국	김병립	김양희	김정아	김태완	남은희	박광휘	박영후	박해지	서명교	송강직	심미화	오세경	윤금주	이기성	이선희	이익선	이지운	임영희	전재국	정우철	조석봉	차서현	최용수	하한정	황규홍
강상모	구종환	김남균	김병수	김어원	김정한	김태우	남지연	박기상	박옥순	박혁	서미옥	송대성	심부자	오소라	윤대원	이기혁	이선희	이인용	이지원	임옥근	전재혁	정원빈	조성식	차윤석	최우석	하한주	황기식
강상훈	권기항	김남수	김병조	김연국	김정화	김태우	남찬섭	박기현	박용섭	박현숙	서상국	송명근	심영규	오수연	윤만희	이기훈	이상구	이일성	이지혜	임윤경	전정순	정원화	조숙희	차윤숙	최원	한경문	황덕기
강석우	권대성	김남영	김병찬	김영근	김정희	김태원	남창우	박남쿨	박용성	박현우	서석준	송명근	심재후	오승현	윤미	이난희	이성민	이장욱	이진	임정식	전지숙	정우태	조슬기	차은희	최원준	한경훈	황명균
강선화	권동식	김남희	김보람	김영민	김정희	김태철	남현정	박달해	박유영	박현태	서성구	송모란	심현지	오승환	윤민수	이남경	이성숙	이장현	이진걸	임지아	전찬권	정윤정	조이라	차재용	최유준	한덕희	황병희
강성원	권명수	김다송	김보배	김영민	김종국	김태훈	노강민	박동민	박유진	박형태	서승원	송민정	심형열	오영란	윤별	이남주	이상호	이장호	이진규	임지현	전찬민	정윤정	조애진	차재윤	최은희	한동국	황보한
강성원	권성길	김달호	김보연	김영선	김종렬	김태희	노경혜	박미옥	박윤경	박해진	서쌍용	송성훈	안경순	오영훈	윤별아	이대성	이상호	이재동	이진우	임지혜	전호정	정은서	조양훈	차종문	최익준	한세익	황부상
강수진	권순일	김대건	김보연	김영우	김종욱	김하나	노병환	박미정	박윤호	박홍준	서영호	송시영	안기범	오윤석	윤상우	이대성	이소연	이재성	이진태	임지홍	전호철	정의희	조영은	차지훈	최민국	한승윤	황선락
강영조	권영근	김대경	김상봉	김영준	김중수	김하이	노상우	박미향	박용호	박환석	서영희	송유진	안길용	오은미	윤상일	이대승	이수호	이재열	이진호	임진규	정강재	정익제	조영정	채승용	최인숙	한승호	황성영
강용진	권영근	김대륙	김상봉	김영준	김중식	김향이	노영정	박미혜	박은경	박환민	서우석	송재만	안나현	오응수	윤상현	이대승	이승규	이재영	이찬연	임현석	경영미	정인상	조완섭	채승훈	최일규	한영립	황성원
강은미	권영삼	김대영	김상열	김영하	김중식	김현	노영진	박민선	박은경	박희태	서재유	송정량	안목련	오인석	윤석기	이덕영	이승용	이재욱	이창경	임형규	정경환	정재경	조용복	채종덕	최임근	한종원	황영식
강은혜	권영성	김대영	김상열	김영호	김종욱	김현미	노영훈	박민성	박은정	반성욱	서정우	송창호	안미혜	오임숙	윤성국	이도경	이승욱	이재은	이창수	임형준	정규식	정재민	조용언	채희탁	최재익	한준성	황영정
강이래	권영준	김대욱	김상준	김영환	김종혁	김현민	노창현	박민수	박은정	반한용	서정택	송형기	안분훈	오주성	윤성수	이도관	이승욱	이재진	이창율	임혜연	정기욱	정재선	조우숙	천상명	최재영	한진섭	황영현
강정호	권영탁	김대웅	김상진	김영훈	김종현	김현수	노춘근	박병권	박일근	방대중	서주환	송호근	안새봄	오지영	윤성욱	이도현	이승재	이재현	이창훈	임혜진	정남기	정재현	조인경	천재림	최재호	한현석	황영희
강정화	권오구	김대준	김상태	김예지	김주영	김현우	노해성	박병규	박장식	방순금	서주희	송훈춘	안성률	오진환	윤성환	이도환	이승태	이재형	이철오	임홍석	정다형	정재현	조장우	천정빈	최정현	함미란	황욱연
강중훈	권오근	김대중	김상현	김오연	김주오	김현준	노현숙	박복자	박재근	배길석	서창현	신경미	안승광	오창일	윤세련	이동근	이승현	이재환	이철우	장기철	정달식	정중혁	조재현	최광호	최정호	함정임	황원주
강주용	권우정	김대현	김상현	김완중	김주찬	김현중	노현욱	박봉경	박재민	배도정	서주연	신경아	안영주	오현택	윤아영	이동명	이승현	이재훈	이충섭	장기현	정대성	정중희	조정호	최구진	최정훈	허경행	황인성
강지연	권재영	김대환	김상호	김우남	김준석	김현진	노희관	박봉철	박재우	배동고	서현준	신경탁	안원석	오형진	윤영준	이동숙	이승형	이재훈	이태광	장두남	정덕업	정준식	조철기	최규환	최정훈	허남인	황지영
강지현	권재영	김덕현	김석지	김우현	김준우	김현태	도동우	박상석	박재우	배문형	서화영	신경호	안일선	육민	윤원용	이동원	이승희	이정관	이평세	장명수	정동열	정지민	조할래	최금화	최종국	허만용	황재용
강태홍	권태정	김도경	김석현	김원재	김준우	김형록	도정환	박상아	박재진	배성류	석민서	신기욱	안태형	육수선	윤은기	이동우	이시은	이정만	이해강	장문재	정득현	정진아	조현아	최대성	최창윤	허미림	황재후
강하승	권한용	김도한	김선경	김위근	김준찬	김형빈	라광현	박상욱	박정국	배성한	선정애	신미경	안해령	육수상	윤은주	이동주	이신영	이정만	이해강	장미	정무섭	정진용	조현아	최대성	최창윤	허미림	황재후
강항모	권현규	김도훈	김선규	김윤경	김준형	김형석	류관호	박상원	박종귀	배유일	설영진	신민준	안효성	왕민	윤인식	이동준	이아희	이정은	이해우	장민우	정미숙	정진용	조현준	최동원	최창현	허성란	황지연
강혜진	권현안	김동국	김선규	김윤정	김지건	김형수	류단비	박상혁	박종민	배재한	설형수	신병준	안효익	왕승민	윤인한	이동진	이애경	이정은	이해인	장병일	정미영	정진희	조형열	최문환	최케이트고은	허영민	황지영
강혜진	권혜민	김동섭	김선미	김윤지	김지나	김형진	류미향	박상현	박종선	배주용	성기근	신병준	양건석	왕카이	윤재준	이동철	이양복	이정재	이행진	장보고	정민	정찬식	조혜영	최미숙	최한별	허영호	황지영
강효	권혜원	김동섭	김선익	김윤진	김지만	김형철	류민호	박상현	박종울	배지영	성기진	신봉준	양근혁	용성준	윤정한	이명숙	이연진	이정화	이현경	장상목	정민경	정창석	조혜정	최미옥	최현석	허원재	황지현
계민수	권효철	김동수	김선진	김윤희	김지숙	김혜경	류순식	박상흙	박종현	배진경	성낙용	신부삼	양동원	우상국	윤준호	이명진	이영근	이정훈	이한상	장선희	정민석	정충훈	조홍률	최민아	최현중	허재복	황희정
고상만	권희진	김동우	김성국	김윤희	김지연	김혜란	류승훈	박서준	박종훈	배태섭	성백석	신상문	양동춘	우연주	윤지용	이명환	이영민	이정희	이현	장세훈	정민준	정태호	주니안	최민철	최현태	허정	황희정
고상석	기성훈	김동준	김성기	김은경	김지연	김혜숙	류윤주	박석강	박주상	배한숙	성병찬	신상열	양미경	우은정	윤지원	이무연	이영석	이중민	이현섭	장소라	정민호	정태화	주명희	최백	최형림	허진만	
고성광	기정현	김동찬	김성동	김은영	김지현	김혜영	류윤아	박석주	박주현	배형우	성봉자	신상용	양상섭	우진희	윤진호	이문정	이영용	이중서	이현세	장소영	정병수	정해영	주석민	최병열	최형열	허진혁	
고성원	김기은	김동환	김성렬	김은주	김지혜	김혜정	류은영	박선아	박준혁	배홍준	성세현	신상원	양신우	원효정	윤찬수	이문희	이영준	이중학	이현정	장승권	정보윤	정해용	주성식	최병욱	최혜정	허창환	
고수현	김건욱	김동훈	김성목	김은주	김지혜	김혜진	류윤현	박선희	박준호	백건희	성수현	신상의	양재성	원동화	윤창민	이민희	이영준	이중화	이현정	장시연	정봉식	정현욱	주인숙	최병일	최혜정	허태희	
고여경	김건우	김민재	김성목	김은주	김지혜	김혜진	류희희	박선희	박준홍	백경민	성이용	신상철	양재호	위순선	윤태영	이민준	이영춘	이중호	이현주	장윤창	정봉식	정현욱	주인숙	최보라	최호림	허형록	
고영남	김경우	김영재	김성재	김은혜	김진길	김효성	문건주	박성범	박지연	백성훈	성지현	신상현	양주순	유경규	윤해진	이반디	이영호	이중화	이현호	장정희	정성진	정현도	주재현	최보훈	최호석	허혜숙	
고영라	김경태	김명범	김성진	김의도	김진석	김효준	문동욱	박성빈	박지용	백승우	손경석	신성호	양준위	유경탁	윤현우	이병선	이영환	이중화	이현희	장정표	정시영	정현우	주차돈	최봉석	최홍규	현수빈	
고유석	김경화	김명수	김성태	김익현	김진수	김훈	문병진	박성일	박지은	백승이	손경환	신숙영	양혜리	유길준	이기영	이보경	이옥부	이중환	이혜민	장정환	정선아	정현욱	주현욱	최봉환	최희선	현안나	

</

# HIGHLIGHT 2024 공식 홍보영상

'더불어 성장함'이라는 경험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요즘, 스승과 제자가 어울리고 실천하며 헌신하는 '동좌문도' 정신을 토대로 제작한 새로운 동아대학교 홍보영상을 소개합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승학·부만·구덕캠퍼스 전경, 시대 변화와 발맞춰 도약하며 저력을 증명한 동아대 구성원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끝없는 열정과 환대로 함께 할 동아대학교의 홍보영상을 만나보세요!



Korean



Japanese



Chinese



English



Vietnamese

## SPOTLIGHT

# 한학기 HOT했던 SNS



**뜨거운 여름, 동아대와 함께라면**

#가리온 #댄스동아리 #사이흠백쇼 #42psy42 #여름 #대디 #Daddy

**맛을 먹은대로~ 마음 가는대로~**

#동아대 #동아대학교 #대학교 #1분 #뮤지컬 #새내기 #대학생활

**직장인 선배님 인터뷰. 카카오편**

#취업 #카카오 #카카오비즈니스세미나

**선배에게 물어봐 현대자동차편**

#재직선배 #취업준비 #현대자동차 #리더스활동